

시론



강 동 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랑나눔치과 뇌
건강치과학 시연구소 대표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광복의 완성을 묻는다. 반도체와 AI가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시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떤 기술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할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이다. 필자는 그 출발점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원전을 바탕으로 영웅의 모험과 귀향을 그리고 있다. 영화의 중심에는 크세니아(Xenia:환대)와 노스토스(Nostos:귀향)가 놓인다.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환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고대 그리스의 윤리적 규범인 제우스의 법칙이며, 노스토스는 오랜 시련을 거친 인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뜻한다.

트로이 전쟁 이후 이타카로 향하는 여정은 목마를 선물로 위장해 환대의 법을 어기고 살육을 자행한 죄의식을 깨닫고 성찰하는 과정이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공간의 이동인 동시에, 변화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책임을 새롭게 확인한다.

영화의 여러 장면은 오늘의 교육을 비춘다.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오디세우스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지혜와 전략으로 돌파한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승리를 과시하고 상대를 조롱한 오만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XIX

-교육의 오디세이, 반도체·AI 도시의 인간을 묻다

분노와 동료들의 고난으로 이어진다. 지혜는 기술적 영리함만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판단이어야 한다.

세이렌의 노래는 욕망과 매혹을 보여준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묶도록 한다. 이는 의지만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도움과 장치를 활용하는 자기조절의 지혜다. 카리브디스와 스킨라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조건을 드러낸다.

키르케가 사람들을 돼지로 바꾸는 장면은 인간 안의 야만성, 탐욕과 무절제를 돌아보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지혜롭고 용감하지만 기만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귀향을 완전한 영웅의 개선향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선택이 누구에게 이익과 피해를 주었는지, 영리한 전략이 언제 정의를 벗어나는지 비판적으로 물어야 한다. 고전의 교육적 가치는 영웅을 모방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양면성을 토론하는 데 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니체(1844-1900)의 자기 극복과 운명애의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는 영화가 니체의 사상을 직접 담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사유를 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는 존재다.

AI 시대의 교육은 답을 많이 아는 능력보다 무엇을 질문하고 판단하는 지에 대한 힘을 길러야 한다. 불확실성을 견디고 실패를 성찰하며, 지식을 연결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AI 시대의 위기

는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데만 있지 않다. 인간이 서로를 데이터와 경쟁자로만 보게 되는 데 있다. 기술이 인간을 분류할수록 교육은 타자를 존엄한 주체로 대하는 환대(크세니아)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반도체는 AI 문명의 물질적 기반이지만, 교육은 그 방향을 정하는 정신적 기반이다. 광주는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질문과 협력의 교육,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로 연결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와 실패를 허용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광주는 청년과 이주민, 소외계층, 외부 인재가 끼여 참여할 수 있는 환대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오디세이는 청년을 도시에 붙잡아 두는 일이 아니다. 세계로 나아가 배우고 도전하게 하며, 성장한 청년이 돌아와 새로운 이타카를 창조하도록 돕는 일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가 환대의 문명이 파괴됨을 직시하고 왕권을 내려놓고 땅자의 혼을 달래고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위해 서쪽을 향해 다시 출항하는 모습은 귀향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송가’처럼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반도체와 AI 도시의 진정한 혁신은 기술의 속도만 높이는 데 있지 않다. 타자를 환대하고 기술에 책임을 지며 공동체의 미래를 창조하는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교육은 기술을 쫓는 인제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시민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광복은 과거의 해방을 넘어 미래의 책임이 된다.

社說

이젠 전남 국립의대 유치 갈등 끝내고 상생의 길로

우여곡절 끝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목포대학교는 탈락했다. 전남광주특별시로부터 심사를 의뢰 받은 전남연구원은 추진체계, 교육시설, 병원, 교원 확보계획,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다. 양 대학은 대부분 항목에서 대동소이한 점수를 보였으며, 미세하게 승부가 갈렸다.

특별시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정원 100명으로 추천하면서 30년 묵은 숙원사업이 드디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제였던 대학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청 시한을 넘겨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민행배 시장이 국무회의 건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제2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미 경북도는 국립경국대에 50명 규모로 제출해 자격을 취득했다. 향후 경쟁이 예상되는데 일각에서 분할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역점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배정을 제시했던 만큼 전남 유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극단 갈등의 후유증을 서둘러 수습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됐다. 지난날 대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도 심각

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소의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특별시는 탈락한 대학과 지역을 대상으로 대학병원급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 등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 일각의 우려를 딛고 승복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남 의대는 2030년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철점에 섰다. 청년이 양질의 의학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안정 정착할 기반이 마련됐다. 절대적으로 취약한 중증·필수·응급의료의 토대를 잘 다져야 하는 계다. 국립의대를 받듯이 세울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애초부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대학과 정치권, 시민들이 힘을 더 모아야 한다. 순천대에 국립의대와 함께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누구든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 하나의 의료체제로 완성, 선순환 구조로 작동돼야 한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동·서부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 정례회 안건 심사 전남광주시의회 역량 시험대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9월에 출범 후 처음으로 정례회를 개최한다. 외형상의 덩치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도 커졌다. 심의할 조례안은 모두 280여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새로운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유례가 없는 광역 행정통합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안건은 특별시제도에 따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기존 광주와 전남에서 운영해 온 제도를 하나로 정비하는 내용들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옛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기 시행했던 농수산·재난안전·복지·경제 분야도 일원화해야 한다. 맞물려서 별도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조례들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특별시는 8월 중 입법예고한 것까지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가 제출키로 했다. 시군구 사무이양과 제안, 정책자문관·고문·특별보좌관 도입 등 통합시 운영에 뒤따라야 할 사항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4월 8본부·27국과 4부시장

직제를 구축하고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의 핵심 기능을 배분하는 게 골자인 조직 개편안도 함께 다뤄진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분배 문제와 청사별 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2025년 회계연도 결산·2026년 추경안 지출 승인까지 원활히 점검할 수 있을까 정례회를 지켜보게 된다. 불과 10일 간의 일정이다. 짧은 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슈로 떠오른 굵직한 현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무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색한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특별시의 성공을 지원해야 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받아들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더라도 더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특별시의회다. 말보다는 결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다. 맞다. 눈앞에 안건이 산적해 있다. 필요한 정책은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선진 의회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하겠다.

현장칼럼



양 석 용
강진군 스포츠산업과장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최근 각 지자체의 중요한 화두는 ‘생활인구’의 확대이다.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방문·체류 인구를 말한다.

생활인구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중요하게 반영되는데 강진군은 이 지표를 통해 2025년에 비해 올해 14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을 지속 방문·체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자체의 명운을 쥐고 있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대의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해답을 ‘스포츠’에서 찾고 있다.

현재 강진군은 전지훈련 최우수 기관 3년 연속 달성이라는 금자탑에 도전하고 있다. 훌륭한 체육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 군민들의 따뜻한 인심이 어우러져 매년 수많은 스포츠인들이 강진을 찾고 있다. 특히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대회 적극 유치는 외부 인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 상권에 즉각적인 활기

스포츠마케팅이 이끄는 생활인구 확대, 강진경제 버팀목

를 돌게 하는 검증된 방법이다.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의 힘을 띄어별이 내리쬐는 한여름임에도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국제 축구 스토브리그 및 교류전’ 유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1일간, 중국 허난성 푸양시의 ‘요우이 스포츠클럽’ U-15 선수단과 국내 전국 각지의 우수 중등 축구 팀 16개 팀 등 총 17개 팀이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강진군에 모였다. 단순히 훈련 구장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중국 훈련단과 국내 중등부 학생들이 강진에서 함께 땀 흘리며 교류전을 펼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경을 초월한 선수들이 청자구장에서 기량을 겨루고 강진청자FC, 강진스완스여자 축구단과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강진은 그야말로 글로벌 축구 교류의 장이 됐다.

전지훈련 기간 중 강진읍에서 식당을 운영 하는 한 상인이 전해준 이야기가 뇌리에 깊이 남아있다.

“중국 축구팀, 국내 선수단이 열흘동안 식당을 찾아줘 모처럼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지훈련 유치가 우리 같은 상인들한테는 진짜 돈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효자네요”

상인의 기본 좋은 미소 속에 강진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있다.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들까지 포함해 11일간 체류하며 발생한 연인원은 9천300여명에 달한다.

이는 단일 해외 유치 사례에 머물던 과거

와 비교해 폭발적으로 확대된 수치다. 이들은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가우도, 고려청자박물관, 마량농토수산물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누비며, 합동 스토브리그 단일 행사만으로도 지역 내에 약 9억3천만원 이상의 직접적인 소비 창출 효과를 남겼다.

이처럼 국제 교류전과 합동 전지훈련 유치는 단순한 체육 교류를 넘어, 관내 소비 지출을 극대화하고 강진의 매력을 세계로 알리는 든든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내외의 선수단과 그 가족들이 강진의 훌륭한 시설에서 함께 훈련하고, 강진의 맛과 멋을 아낌없이 소비하고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가 목표하는 ‘돈이 되는 생활인구 확대’의 모범 사례이다.

강진군 스포츠산업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 3년 연속 전지훈련 최우수 지역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행정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강진군민의 밥상마리를 풍성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살찌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강진을 찾아오는 수많은 훈련팀과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기분 좋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변함없는 환대와 응원을 당부한다. 스포츠로 다시 뛰는 강진군의 힘찬 발걸음에 군민들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 3천22명에 달했으며, 2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든 사회적 범죄이다.

얼마 전 유명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부모를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고 다이어트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약 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마약범죄가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사회적 범죄인 마약사범, 예방만이 살길이다

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약범죄는 다른 추가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강한 중독성 때문에 평생 끊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통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아 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우리나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면서 국내 마약사범이 최근 5년새 약 120% 증가하고 있다. 마약범죄에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위험부담이 적은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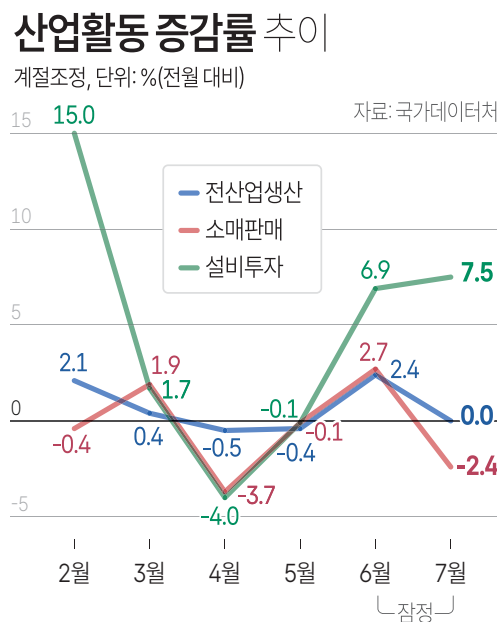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마약은 독이다. 마약은 소지만 해도 범죄가 된다. 예방과 치료, 강력한 처벌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은 한순간이며 중독의 고통은 평생 간다. 무조건 예방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김주현·여수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연립뉴스

7월 산업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전산업생산은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2.4% 증가로 전환했으나, 7월에는 보합을 나타냈다. 광공업생산은 0.2% 증가했다. 자동차(-4.5%) 등에서는 생산이 줄었지만, 전자부품(20.7%), 1차 금속(4.2%)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반도체 역시 소폭(0.5%)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4월(-3.7%)과 5월(-0.1%) 이후 6월(2.7%) 증가했다가 7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7%)와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1.3% 줄었다. 2022년 2월(-1.7%)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최근 고물가와 폭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5% 늘었다. 6월(6.9%)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로 2월(15.0%)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연립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팀	650-2011	편집국	650-20
사화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경인본부	650-2007	법무부	650-20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사업부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